더 교묘해진 중국어선 불법조업

철판·쇠창살 설치 저항 방식도 갈수록 흉포
서류위조·EEZ 걸치기 지능적 수법까지 동원
해경, 개인 안전·진압장비 보강 등 단속 부심

지난달 1일 중국 유자망 어선들의 금어기가 해제돼 서·남해안 바다로 밀려드는 무허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해경도 전술 워크숍을 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24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올해 우리 측 해역을 침범, 불법 조업할 중국 어선은 30만척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 어선의 '꼼수'가 늘고 있는 것이 해경의 고민이다. 기존에 망치·손도끼로 무장하고 배에 철판을 두르고 쇠창살을 설치하는 등 흉포화된 저항 방식은 고스란히 유지하면서도 서류를 위조해 눈속임을 하거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며 불법 조업을 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까지 동원하는 어선들이 확산하고 있다는 게 단속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밧줄로 연결해 거대한 선단을 이루며 대항하는 보편적인 방식을 쓰면서도 10~20척씩 '계'를 조직, 한 척만 단속에 걸리도록 하고 이후 나머지 선박이 단속 보증금을 보태주는 '고육지책' 도 널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측 해경 단속 방식도 진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해상진압복, 방검부력조끼, 그물총 등 개인 안전·진압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쇠창살이 설치된 어선에 올라타 단속하는 방법으로 고속 단정을 이용, 쇠창살을 구부려 무력화시키고 승선하는 방안을 최적으로 판단, 연습하고 있다.

또 수십척이 떼를 이뤄 저항하는 경우 어선 바로 위까지 헬기를 동원, 바람의 힘을 빌어 흐트러트린 뒤 단속에 나서는 게 효율적인 것으로 단속 전략을 수립했다.

하지만 승선을 막기 위해 배에 철판을 두르는 어선을 단속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중이다. 해경측은 지난 5월 철판을 두른 어선을 실제 제작, 진압 연습을 실시하는 등 신종 저항에 대한 유형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때 절단 장비나 폭약을 넣은 충격탄으로 철판을 부수거나 걸쇄형 사다리를 특수 제작해 철판에 걸쳐 단속 어선에 올라탄 뒤 제압하는 방법 등이 집중 논의됐지만 걸쇄형 사다리로 단속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해양경찰청이 최근 개최한 '전술발전 워크숍'에서 단속대원들이 신형 사다리를 이용해 철판을 두른 가상의 불법조업 어선에 승선하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다만, 빠른 속도로 달아나는 어선의 동력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세우지 못했다. 이 방안은 국민 공모까지 거쳤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여기에 최근 해경은 어업 허가증을 정밀하게 위조해 작업에 나서는 불법 어선들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불법 조업 어선들이 지난해 나포 보증금이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서류위조를 해 빠져나가려는 수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측 해역에 들어오지 않고 EEZ 경계선을 넘나들며 조업을 하는 선박과 '고육지책' 방식을 활용, 한 척을 단속 해경에 '내주고' 나머지 수십척은 불법 조업에 나서 어획물을 싹 쓸이한 뒤 나중에 단속 보증금을 보태주는 방안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경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불법 조업을 하다 단속된 중국 어선은 337척으로 이 중 235척이 나포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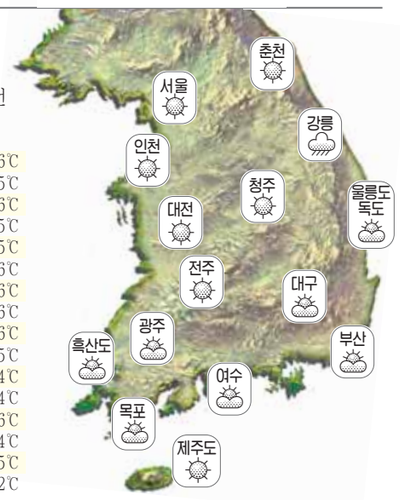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22분 해짐 18시 25분 | 달뜸 22시 13분 달짐 11시 46분

찌뿌린 하늘

가끔 구름 많겠고 기온 선선하겠다.

광 주	구름많음	19/26℃
목 포	구름많음	20/25℃
여 수	구름많음	22/26℃
나 주	구름많음	18/25℃
완 도	구름많음	21/25℃
구 례	구름많음	20/26℃
강 진	구름많음	20/26℃
해 남	구름많음	20/26℃
장 흥	구름많음	20/26℃
순 천	구름많음	19/25℃
영 광	구름많음	17/24℃
진 도	구름많음	20/24℃
전 주	맑음	19/26℃
군 산	맑음	18/24℃
남 원	맑음	19/25℃
흑산도	구름많음	19/22℃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먼바다	북서~북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먼바다	북서~북	1.0~2.0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불쾌지수
경고	보통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먼바다	북서~북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5m
먼바다	북서~북	1.5~3.0m

	밀물	썰물
목포	05:26 18:10	10:35 23:10
여수	12:24 --:--	05:50 18:1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10/1(화)
날 씨						
최저/최고	15/24	12/25	15/25	17/25	18/26	18/27

기업 인사담당자 절반 "스펙 안따진다"

학벌보다 책임감·직무 수행 능력 중시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은 직원을 뽑을 때 스펙을 따지는 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신뢰도가 가장 낮은 스펙은 '학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지난달 29일부터 2주간 기업 인사담당자 1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1.8%(86명)가 '채용할 때 스펙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그 이유로는 '스펙이 실력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서'(53.5%·복수응답), '인성 등 다른 능력이 더 중요해서'(46.5%), '스펙만으로 검증이 힘든 게 있어서'(31.4%), '스펙만 보고 뽑았다가 이탈 등 손해를 봐서'(25.6%) 등을 꼽았다. 신뢰도가 낮은 스펙은 '학벌'(39.5%)이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근소한 차이로 '학점'(38.4%)과 '토익 등 공인어학성적'(33.7%)이 그 뒤를 따랐다.

스펙을 대체할 다른 평가 기준으로는 '책임감·원만함 등 인성적 요소'(35.9%), '직무 지식 또는 수행 능력'(17%), '입사의지 등 조직을 대하는 태도'(15.1%), '잠재력·성장성'(13.2%) 등을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초등학교 "남자 선생님이 없어요"

광주 초교 2곳 여교사 95%…학폭 예방·생활지도 어려움 호소

"우리 학교에선 남자 선생님 찾아보기 힘들어요. 교감선생님 말고 1명 뿐이거든요."

광주지역 초등학교의 남교사 기근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생활지도, 체험학습 지도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4일 교육부 교육기본통계와 학교알리미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초등학교 교사 10명 중 8명은 여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68.9%에서 올해 79.8%로 10년 사이에 10.9%포인트 급증했다.

실제 33개 학급의 중급 규모인 북구 하백초등학교는 전체 교원 48명 가운데 남자 교원은 고작 2명뿐이다. 이 중에서도 1명은 교감이다.

서구 마재초등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31개 학급인 이 학교도 전체 교원 46명 가운데 교장과 보직교사 2명만이 남교사이고, 나머지 44명은 여교사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전체 교사의 84.6%가 여교사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북구 81.6%, 동구 80.7%, 남구 79.1%, 광산구 75.2% 순이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립고교 "여자 선생님이 없어요"

女교사 비율 10%대…공립 70%대와 대조

광주지역 사립 고등학교에서는 여자 선생님을 찾아보기 힘들다.

고려고의 경우 전체 62명의 교원 중 여교사는 고작 4명(6.5%) 뿐이다. 서석고 10.0%, 인성고 10.6%, 문성고 10.9%, 숭덕고 12.9%, 석산고 14.5%, 대동고 15.5% 등 상당수 사립고의 여교사 비율이 10%대에 그치고 있다.

교육계에선 사립이 남교사를 선호하는 이유로 입시지도와 학생생활지도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또 육아휴직 등으로 공백이 많다는 점도 들고 있다.

반면 국·공립 고등학교는 여교사 비율이 70%에 달하고 있다.

광주여고와 문정여고는 여고의 특성이 가미돼 여교사비율이 각각 73.1%, 72.0%를 차지했다. 남녀공학인 첨단고(71.0%)·전대사대부고(70.6%)도 70%를 넘어섰다.

광주지역 전체 고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42.2%였다. 지역별로는 여고가 많은 동구지역이 51.2%로 여교사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광산구 47.4%, 서구 42.2%, 북구 41.1%, 남구 35.3%로 지역 간 격차도 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불법 사금융 집중단속

전남도, 각 시·군 내달까지

전남도와 각 시군이 다음달까지 불법 사금융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전남도는 24일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일선 시·군과 불법 사금융 단속회의를 가졌다. 이들 기관들은 다음달 말까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과 법정 이율 초과행위, 전단을 활용한 불법 대부광고, 불법 채권추심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피해신고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경찰청(☎112), 전남도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061-287-1332) 등에 하면 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과학대학교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특별과정 www.cntu.ac.kr

성인학습자 모집

전남과학대학교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특별과정이란?

급변하는 사회 속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능력 향상이나 취·창업을 꿈꾸는 일반 성인(만 23세이상 혹은 재직자)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의 장을 열어주는 사업입니다. 10가지의 다양한 무료 특별 강좌를 통하여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고 재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계함으로서 성인학습자에게 제2의 도약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특 전 www.cntu.ac.kr
- 교육비, 실습비 완전 무료
- 실무형 교육과정 운영
- 취업알선, 본교 입학시 소정학점인정과 장학혜택

지원자격 www.cntu.ac.kr
- 만 23세 이상 미취업자 / 자영업자 / 프리랜서
- 만 23세 이상 현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직자

모집기간 www.cntu.ac.kr
- 2013년 9월 1일 ~ 10월 1일 (정원내 선착순 모집)

특별과정 요약

프로그램명	모집대상	상담교수	교육기간	모집인원(명)	교육장소
귀농 귀촌형 농업인 양성과정	23세 이상 성인 학습자	김철홍 (010-3012-9904)	13. 10. 2 ~ 13. 12. 4 (수) 10주, 30시간 10:00 ~ 13:00	25	남부대학교
도시 원예사 양성과정			13. 10. 2 ~ 13. 12. 4 (수) 10주, 30시간 14:00 ~ 17:00	25	남부대학교
지게차 운전과정		이영환 (010-3629-4297)	13. 10. 5 ~ 13. 12. 7 (토) 10주, 30시간 9:30 ~ 12:30	25	전남과학대학교 자동차실습장
용접인력 양성과정			13. 10. 5 ~ 13. 12. 7 (토) 10주, 30시간 9:30 ~ 12:30	25	전남과학대학교 자동차실습장
발관리사 양성과정		국지연 (010-5485-2991)	13. 10. 5 ~ 13. 12. 7 (토) 10주, 30시간 9:00 ~ 12:00	25	남부대학교
네일아티스트 양성과정			13. 10. 4 ~ 13. 12. 6(금) 10주, 30시간 9:00 ~ 12:00	25	남부대학교
커피지도사 2급과정		양웅식 (010-3342-3361)	13. 10. 20 ~ 13. 12. 8(일) 8주, 24시간 13:00 ~ 16:00	25	아이콘 라운지바
우리술 칵테일조주 전문가 양성과정			13. 10. 20 ~ 13. 12. 8(일) 8주, 24시간 16:00 ~ 19:00	25	아이콘 라운지바
구음으로 배우는 반주법		구제창 (010-2720-5632)	13. 10. 5 ~ 13. 12. 7 (토) 10주, 30시간 15:00 ~ 18:00	25	전남과학대학교
유아 음악놀이 지도법			13. 10. 5 ~ 13. 12. 7 (토) 10주, 30시간 15:00 ~ 18:00	25	전남과학대학교
합 계				250	

문의 061-360-5348(평생학습 지원센터), 010-3348-7858(평생학습 행정담당)

승인 교육기관 세계로 앞서가는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안 내: http://www.leagri.or.kr